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왕

아름다운 에덴동산 친히만든 그곳이라 인생에게 다스리라 최고왕권 주셨으나 탐욕으로 멸망의길 죄의종이 되었으니 만왕의왕 우리주님 애통한맘 누가알까?

부정할수 없는원죄 나의마음 장악하며 만왕의왕 어디있나! 왕은너다! 왕은너다! 그소리에 청종하는 나의모습 보실때에 만왕의왕 내주예수 어찌마음 안아플까?

하늘왕좌 버리시고 이땅오신 겸손의왕 죽기까지 섬기는것 나의구원 위함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죄자복 하였을때 만왕의왕 내주예수 두팔벌려 안으셨네

내마음의 왕좌에 만왕의왕 앉으시니 우선순위 바로되어 화평세월 누리누나 종의 명에 벗고보니 나의 왕장 너는 공주 영원토록 경배찬양 만왕의왕 나의주님.

철야에베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주신 마음을 정리하여 적어보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대응방안 논의

한교연 9-5차 임원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9월 1일(화)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9-5차 임원회를 열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조치 당한 교회들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모든 교회에 대해 예배를 금지한 이후 일부 교회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에 대해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임원회는 이날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가 당국에 고발 조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갈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교연이 적극적인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파주시에 의해 고발 조치되어 교회가 폐쇄된 운정침례교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민원합의 등과 연대해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일선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이 문제를 신학위원회에 맡겨 한국교회가 신학적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임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재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교회들이 방역 당국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

따라서 발열검사, 마스크쓰기, 출입기록부 작성, 성도 간 2미터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회원교단들이 신하 교회에 철저히 주지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임원들은 당국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교회들까지 일률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국가안보와 종교의 자유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레이건이 말하는 보수주의 원칙은 11가지로 대변된다. 자유에 대한 믿음, 개인에 대한 믿음, 낮은 세금, 제한된 정부, 반공주의, 힘을 통한 평화, 인간 생명의 신성, 인간의 존엄성 등등이다.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문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은 무엇인가? 대북관계를 제일로 삼고 남북연락사무소를 그 상징으로 선전해왔는데 북한이 무자비하게 폭파해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폭파와 함께 상징도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면 자유인가? 그것도 아니고, 낮은 세금인가? OECD국가 중에 두 번째로 세금이 높으니 그것도 아니고, 제한된 정부인가? 전두환 시절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하니 그것도 아니고, 반공주의인가? 신영복 존경, 낮은 고려연방제 반새를 풍기니 그것도 아니고, 힘을 통한 평화인가? 대화가 평화를 가져온 다며 군축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인가?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일까?

재직년 66번째 생일부터 대통령의 생일축하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광화문역을 비롯해 10여 개 역에 '1953년 1월 24일 대한민국에 달이 뜬 날 6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의 생일 축하 광고가 게재됐다. 올해 초에도 광주 지하철역에 박수치고 있는 문대

통령 사진 옆에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라는 광고가 게재됐다. 이렇게 대통령 팬덤은 기승을 부리지만, 업적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전문가의 말도 듣지를 않고 마이웨이만 부르짖으면서 지지자들의 눈치만보면서 하는 정치를 폭정이라고 하던가?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은 시작된다(Where law ends, tyranny begins)'는 유명한 말은 영국의 총리인 윌리엄 피트가 한 말이다. 법도 필요 없다. 오로지 관심인 것은 지지자들의 소리뿐이다. 자신들과 관련된 수사가 맘에 안 들면 인사발령으로 담당검사를 바꾼다. 법이 끝나는 시점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까지도 등쳐먹는 금수(禽獸) 만도 못한 이들을 감싸고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의사를 만들겠다는 정부 여당,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지칭한 통일부 장관, 자제를 모르는 권력의 욕심은 끝이 안 보인다. 주한 대사를 지낸 무로 전 대사는 "한국은 북한을 추종하기만 하고 안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 움직임에 따라 언제라도 붕괴할 수 있는 위태로운 평화"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발 국가안보와 종교의 자유만이라도 손대지 않기를 바란다.(롬 1:23-25)

'영웅의 아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한 대통령이 현재의 그 분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최근 대통령의 표현은 우리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한다. 국민들이 듣기에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지주한다. 독재자로 낙인찍고 있는 박정희 정권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 교회를 압수 수색하고, 주일에 목회자 체포를 시도하는 일, 또 허가받은 집회에 경찰을 보내어 위협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혹시 성경에 있는 '영웅의 아들'이 되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일부 국민들이 좋아하니 전체 교회를 박해하려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 보면 해로운 초대교화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박해한다. (헤롯)이라고 보를 처형하자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도 처형하려고 감옥에 수감했

으나, 하나님께서 사지를 보내셔서 베드로 일행을 감옥에서 석방시켜주셨다. 해로운 '영웅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행을 감아주셨다.

대통령은 천주교인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이 아닌가? 그런데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시려는가? 현재 천주교, 불교는 정상적으로 예배와 미사를 하도록 허락한 상태이다. 이는 천주교, 불교는 존중하고, 기독교만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 같은 정상예배는 박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 얼마 전, 전국의 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과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그리고 한국교회언론회가 어렵게 결집하고,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高言)의 성명을 했다.

교회를 적(敵)으로 돌리지 마시고, 선한 파트너로 여겨 주셔서 인간의 영웅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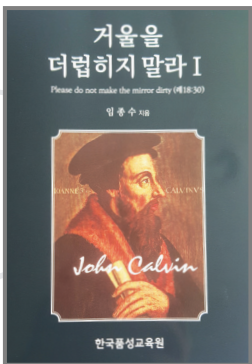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환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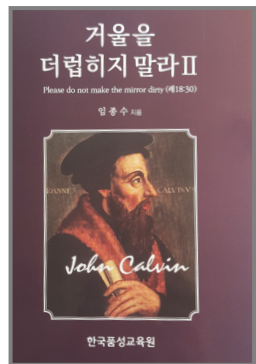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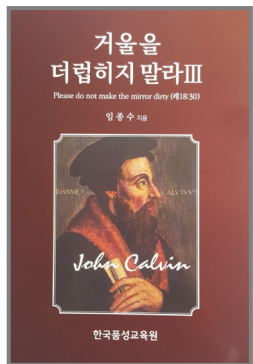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통성교육원